

“직접 행동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임한중 광주 동구 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37년간 직장생활 마치고 10여년째 이웃사랑 실천 '훈훈'
2016년부터 벼바리농장 통해 취약계층 반찬 나눔 지속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행동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임한중(66·사진) 광주 동구 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장은 1일 자신이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7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고향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임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복지, 봉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 2015년 지원2동 복지공동체 위원을 시작으로 임 위원장은 같은 해 지원2동 복지공동체·주민자치위원장을 겸임했으며 2016년에는 동구 복지공동체 위원장, 지원2동 지사협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10여년간 점차 봉사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퇴직 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복지 쪽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지원2동 특성상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스스로도 복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단체 활동에도 이곳 저곳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원2동 지사협 위원장이 된 이후 임 위원장은 2016년부터 벼바리농장 사업을 시작, 8년째 회원들과 해당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벼바리농장은 동구가 용연마을 인근에 지원해준 약 330㎡(100여평)의 땅에서 지사협 회원들이 양파, 감자, 열무 등을 직접 키우고 재배한 뒤 이 농산물을 활용, 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사업이다.



임 위원장은 “회원들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들로 반찬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성이 들어가 그런지 더 싱싱하고 맛도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미소 지었다.

이 외에도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 지원 사업, 명절 생필품세트 나눔 등도 펼쳐왔다.

또한 오는 9월에는 가을맞이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및 노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복구를 위한 나들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반찬 나눔 봉사를 다녀보면 중장년층 중 은둔형외톨이가 많다”며 “그런 분들은 처음엔 반찬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만, 여러 차례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중엔 오히려 우리를 기다린다. 그 분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 가을엔 나들이를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복지는 찾아야 하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며 “지원2동만 해도 복지 관련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홍보도 홍보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은정기자

박광배 5·18기념재단 신임 상임이사 취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로 박광배(60·사진) 전 빛고을시 민문화관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박광배 신임 상임이사는 지난 2월21일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선출·선임됐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광주 출생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박 상임이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 광주드라마센터 비상임운영위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상임이사는 “올해 재단 창립 30주년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5·18의 50년을 준비할 방침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단 추진 5·18 기념사업의 혁신·질적 전환 ▲시민과의 소통 확대 ▲5·18 미경험 세대로의 세대전환 준비 ▲재단 재원확충 방안 모색 ▲국제인권 도시 광주 위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21일 새로운 이사진으로 김승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위원회 선임위원이며 지난해 12월22일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이선임된 바 있다. /주성학기자



전남도로관리사업소, 과적 차량 특별단속·캠페인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는 1일 “과적 근원지역,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차량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지난달 29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단속시간을 피해 고의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운행해 도로 파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과관리소, 8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남도 명예과적단속원이 함께하는 특별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검차 2천70대를 계속했으며 적발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경중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특별 단속으로 과적 근절 및 안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도민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진도경찰-진도로타리, 범죄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진도경찰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the 돌봄 진도통합지원단’ 사업의 일환으로 진도로타리클럽과 연계해 범죄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범죄 피해 가정은 특별한 소득 없이 정부 지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는 홀로노인 가구로, 주택이 노후되고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어려워 썩크대 교체·주거지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약 300만원 상당) 사업이 이뤄졌다.

진도로타리클럽은 경찰서가 선정한 대상자에 매년 약 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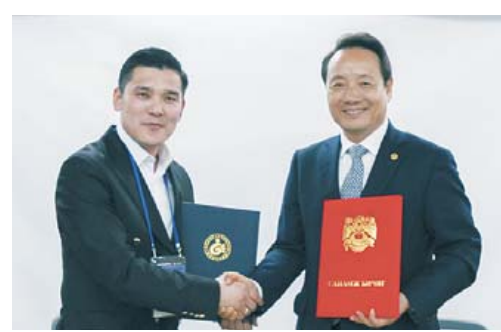
이영우 진도로타리클럽 회장은 “진도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준 진도로타리클럽의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각 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the 돌봄 진도통합지원단’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 공동체 지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동구-몽골 울란바토르市 ‘축제 교류 활성화’ 협약

광주 동구는 1일 “지난달 30일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세계화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시 나담축제 사절단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간 상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한 협약은 임택 구청장과 샌드 아유-쉬(ENKHTAI VAN TSEND-AYUSH)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도문화예술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기관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시 간 축제 운영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정보·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기간에 맞춰 상호 문화예술공연단을 교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오는 8월16-17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몽골 나담 축제에 광주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임택 구청장은 “단발적인 교류를 넘어 양 기관이 실제적이고 중장기적인 후속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은정기자

나주경찰, 참여치안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

나주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참여치안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는 경우회, 경찰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안보자문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이머니회, 여성일상지킴이,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총 9개 협력단체 대표들로 구성됐으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주민 참여치안 활성화 방안 및 치안 환경에 대한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발대식에서 협력단체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윤남철 경찰발전협의회장은 “경찰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시민과 경찰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경찰과 함께하는 참여치안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지역민이 함께하는 참여치안 활성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중환기자



목포 죽교파출소, 등굣길 안전 캠페인 전개

목포 죽교파출소는 1일 “목포 흥일중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협력단체와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김윤수 죽교파출소장,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죽교 생활안전협의회, 학교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과 어깨띠를 활용해 신호위반·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경찰,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전략보고회

해남경찰서는 “최근 2024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회는 배승관 해남경찰서장을 포함한 각 부서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능별 성과과제 지표 평가요소 및 추진현황 보고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배승관 해남경찰서장은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안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예방 캠페인’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일 “오는 4일까지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캠페인 주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영광군,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광청년회의소,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영광여성인전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영광지구, 1388청소년지원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연합 캠페인을 시작으로 영광읍내 초·중·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학기 등굣길 캠페인은 학교폭력·도박·마약 중독 등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청소년전화1388, 고위급 청소년 집중 상담클리닉, 청소년 동반자 등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김정화 센터장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1388로 연락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경찰, 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담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담양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시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현오 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하진호 생활안전교통과장, 이용희 교통관리계장, 김현기 담양 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모범운전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호 담양경찰서장은 “교통 질서 확립에 힘써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역 내 교통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등을 통해 교통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인사

동신대 ▲입학처장 최찬현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겸 대학공유협력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윤경순